

박인비

# 제대로 만났다

리디아 고

### 21일부터 LPGA 캐나다 퍼시픽 오픈 박, 세계 1위 탈환·고, 대회 3연패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2연패를 달성한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캐나다에서 상봉세를 잇는다.

박인비는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 헌트 앤드 컨트리클럽(파72, 6656야드)에서 열리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 출전한다.

그는 18일 막을 내린 LPGA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날 브리트니 린시컴(미국)과 연장전 끝에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5번째이자 올 시즌 첫 메이저 왕관을 썼다.

이 대회를 포함해 박인비는 최근 3개 대회에서 4위(브리티시여자오픈), 2위(마이어 클래식), 우승(LPGA 챔피언십)을 기록, 매년 우승에 근접한 기량을 보이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LPGA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특유의 정확한 퍼트가 빛을 발하면서 퍼트에 대한 자신감도 커진 상태다.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세계랭킹도 2위로 한 계단 오르면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게 내준 정상 탈환도 눈앞에 두고 있다. 18일자 랭킹에서 박인비(11.17점)와 루이스(11.74점)의 격차는 0.57점에 불과하다.

박인비는 최근 캐나다 여자오픈에서는 2012년 2위, 지난해 공동 13위로 준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박인비는 지난 2년간 캐나다 여자오픈 타이틀을 지켜온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의 3연패를 저지하려 나서는 입장이다.

리디아 고는 2012년 15세4개월2일의 나이로 이 대회 정상에 올라 LPGA 투어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당시 아마추어 선수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무려 43년 만이었다.

지난해에도 그는 2연패에 성공, LPGA 투어 사상 최초로 아마추어 선수로서 2승을 차지하는 기록도 세웠다.

올해 초부터 "가장 갖고 싶은 타이틀은 캐나다 여자오픈"이라고 말할 정도로 3연패 도전 의지가 강하다.

프로로서 첫 시즌인 올해 그는 이미 LPGA 투어에서 2승을 기록하며 신인왕 경쟁에서 다른 선수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는 박인비, 브리트니 린시컴(미국)에게 3타 뒤진 단독 3위에 올라 샷 감각 조율을 마쳤다.

한편, 이 대회는 2012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밴쿠버 골프장(파72, 6427야드), 지난해에는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 골프장(파70, 6403야드)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런던으로 장소를 옮겼다.

/연합뉴스

## ‘개점휴업’ KIA

### 3경기 연속 우천취소...타격 훈련하며 컨디션 점검



“줄을 서시오.”

19일 오후 2시, 특타조 선수들이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하나 둘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지만 웬일인지 배팅게이지 주변이 북적북적했다.

특타라고 하기에는 멤버들도 화려했다. 막내급 타자들이 아니라 주장 이범호를 필두로 김민우, 김주찬, 이대형, 차일목 등 주축 선수들이 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미 이들의 이마에는 땀방울도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곧이어 나지환·안치홍·필·이종환·박기남·김다원 등이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면서 “줄을 서시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배팅게이지 근처에 선수들이 그득했다. 덕분에 배팅볼 투수로 나선 김상훈은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KIA 타자들이 평소와 다르게 일찍부터 부지런히 방망이를 휘두르게 된 이유에는 ‘비’가 있었다. 지난 17일 넥센과의 홈경기가 비 때문에 열리지 못한데 이어 18일로 미뤄 편성됐던 월요일 경기까지 취소되면서 KIA 선수들은 빗속에서 지루한 훈련을 진행해왔다.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경기장 3층 콘코스를 돌며 러닝 훈련을 했다. 빗 속에서 평고를 받기도 했지만 타격 훈련은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실내 연습장에서 배팅훈련이 이뤄졌지만 그라운드에서 하는 연습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변덕스러운 8월 날씨에 하늘과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노라 어느새 ‘기상 전문가’가 된 KIA 선수들. 비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타격 훈련을 해야 한다며 일찍 방망이를 챙겨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훈련 중간 중간 일기 예보를 체크하면서 서둘러 타격 훈련을 진행한 이들. 다행히 KIA의 타격 훈련이 마무리된 뒤에야 챔피언스필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선수들의 선견지명이 통한 하루였다.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이내 굵어지면서 결국 이날 예정됐던 삼성과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전반기 비를 피해갔던 KIA지만 휴식기에 비까지 겹치면서 휴업상태가 됐다. 그리고 여전히 20일에도 광주에는 비예보가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특·특·특

## 송은범, 연습 나온 동료들에게 “저는 KIA 전력분석원입니다”

비를 피해 일찍 시작된 KIA 베테랑 타자들의 타격 훈련. 덕아웃에 홀로 앉아 그라운드를 주시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훈련복장을 챙겨입고 나온 투수 송은범이었다. 투수조 훈련 시작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있었지만 일찍 덕아웃에 모습을 드러낸 송은범. 멀뚱하게 자신들을 지켜보는 송은범을 향해 타자들은 “뭘 하고 있냐? 심심하냐?”고 웃었다. 녀석 좋은 송은범의 대답은 “저요? 전력분석원입니다”였다. 사실 심심해서 연습 구경 나온 송은범이었지만 타자들의 타격 컨디션을 꼼꼼하게 살피며 “(김)민우 형 밸런스가 좋은데요. 좋아”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송은범의 너스레에 타자들의 특타 시간에 웃음꽃이 피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파도와 한판 승부

18일(현지시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제도 타히티 섬 티후푸 해변에서 열린 ‘제14회 빌라 봉 타히티 프로 서핑대회’에 참가한 프랑스의 타우마타 푸헤티나가 서핑을 하고 있다. 이 대회는 세계프로서핑연맹(ASP)이 주최했다.

/연합뉴스